

<공개 질의> 6

대학별 모집정원 감축 결과에 비추어 본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의 모집 정원 감축

오랜만에 교수회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2월 말 2023학년도 모집정원 감축에 관한 긴급 <공개 질의>가 멈춘 곳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 질의는 구성원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의 배경)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감축과 같은 일시적 처방으로는 우리 대학이 직면한 그리고 향후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구성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 조정 대상 일반대학 136곳 중 40.4%인 55개 대학만이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대학당 감축 인원은 평균 113.8명으로 총 6,26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6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립대학임에도 정원 153명을 줄인 우리 대학의 결정이 너무 과도했던 것 같아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 대학 본부의 2023년 160명의 정원 감축안 공표 직후,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2021년 미달 인원의 90%인 120명 감축을, 20.7%가 미달 인원의 100%인 133명 감축을 적절한 규모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84.1%의 압도적 다수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최소로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를 통해 드러난 타 대학의 대응 수위를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진행한 총장 중간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가 다른 모든 항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의 우려가 지난 2월 말 결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6-1) 강원도 소재 7개 일반대학 그리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9개 국가중심대(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의 2023년~2025년 감축한 인원, 정원 대비 감축 인원 비율, 모집 유보 및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등 모집 정원

감축의 제반 현황을 우리 대학과 비교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6-2) 금번 모집 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학회계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3명의 정원 감축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은 얼마이고, 정원 감축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학 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53명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회계 손실 추산액)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연간 손실액	6.12억	12.24억원	18.36억원	24.48억원	4년차부터 매년 24.48억

* 감축 인원 153명 100% 총원 및 1인당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가정하여 추산

▶ (질문 6-3) 이번 정원 감축으로 교육부의 지원금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 쌓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학회계의 운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연학비 예산의 축소, 대학회계 직원의 감원 등 교수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의견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개 질의>를 통해 모집 정원 감축에 대한 우리 대학의 결정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아울러 정원 감축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10.1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